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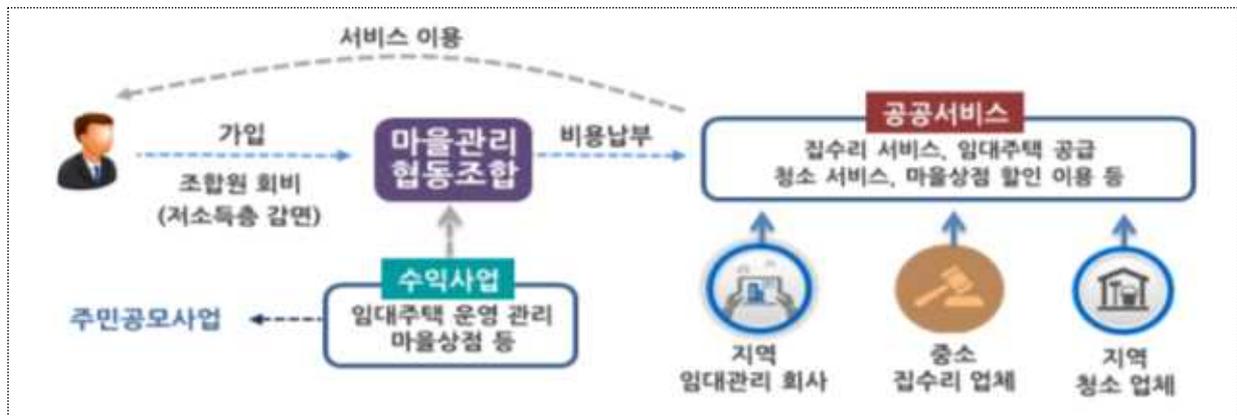
<동정자료>

김현미 장관 “저층 노후 주거지에 공공임대주택·생활 인프라 공급”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공영 주차장·국공립 어린이집 등 설치

-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13일(금) 인천 남동구 만수동 만부마을을 방문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.
 -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“지난 3월에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저층 노후 주거지 재생의 대표 모델을 만들고,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공영 주차장 등 기초 생활 인프라 공급을 적극 지원하겠다.”라고 약속했다.
 - 인천 만부마을은 '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공모 시,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유형으로 선정된 지역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공공 임대주택 공급,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등 기초 생활 인프라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다.
- 김 장관은 현장에서 빈 집과 노후화된 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둘러보면서 취약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당부했다.
 - 아울러 “무엇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이 재정착해 생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란다.”라고 전했다.
 - 노후화된 빌라가 밀집한 지역에 대해서는 “아파트 단지처럼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, 지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서 제시한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.”라고 밝혔다.

-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집 수리, 공동구역 청소, 임대관리 지원, 마을 상점 운영 등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 공급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'마을관리 협동조합'의 구성·운영을 지원한다.
- 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을관리 협동조합(소비자 협동조합)은 서비스 공동구매를 통해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, 아울러 주민 고용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< 마을관리 협동조합 사업구조(안) >



- 마을 커뮤니티센터에 있는 주민 공동작업장을 둘러본 김 장관은 “결국 마을의 재생은 공동체의 회복이다.”라며 “주거환경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, 나아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절실하다.”라고 말했다.
- 김 장관은 이어서 진행된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“저층 노후 주거지를 살맛나는 우리 마을로 재생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.”라며, “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을 위해 인천시와 지역 주민, 그리고 공기업 등 다양한 참여 주체들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. 지역의 노력에 발맞춰 국토교통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.”라고 덧붙였다.

-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.
- 주거 내몰림 없는 주거환경 정비를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서민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. 또한 선진국 수준의 기초 생활 인프라 공급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.
-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한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과 지역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필요한 정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.

2018. 4. 13.

국토교통부 대변인